

左右兩翼臨政
研建議

員會의 指令에 服從할
하야 信託管理反對의 一大
市民 示威大會를 三十一日
△며 總務 情報 行動三

國動中央委員決定

各界各層人士喜總網羅

不安은 一掃하라

하 1 지中將記者團에言明

民族의今日을哭

十二月三十日 星期一
古下 宋遺風先生은 元
初自毛에서 以 羅漢을 受
키 運然히 作故히였다
解放의 曙光이 灰塵에
埋인제 지울이가는 이
하의 이조로 前日이요
그 顯의 痛苦를 지스듯한
對 托治의 悲憤을受게
되니 獨立戰
士들의 다들獨立戰
士血의 先頭者 가루아
리 雖然히 殉國하였다
憶히지? 이何等의 悲
何等的의 痛
事인가? 그리다 悲靜
라하여서 痛事라하여서
哭之前之만 하기에는
이巨人的 駭怖가 비저
土著 國家의 民族의
喪情이 더러나 壯嚴하
며 英雄的인 기풍(時)
國까지도 우리의 建設
에 阻礙하는 우리의 盲途
에 踏을보았따! 하하
그 만일있었다三千萬民衆
이 다섯가지 그피를 등
것어 보았다! 함으로
足하다 覺았이다 光復
의 巨役을爲하기야 苦
成함이며 先生 彼世의
樂이 오히려 無窮할
것이다

獨立戰線에 貴重한 生血

卅日早朝 自宅에서兇彈을맞고

古下 宋鎮禹先生殉國

畢生은 祖國의
解放을 自主獨立
을 爲하야 血鬪
하여온 民族指導
者 古下宋鎮禹先
生은 三十日早朝
出耕分頃 市內
苑洞七四番地 自
宅에서 暴漢의 兇
彈을 맞고 長逝하

鬭爭으로繼續한다

韓民黨決意曰○吾輩固

民族的大損失

金九主席談

二五三 四 奮 闘

李承晚博士談

民族運動의先鋒

古下宋鎮禹先生の略歴

祖國再建에 一柱를 일세!

▲斷國하여 다시 國光復의
 政治의 彈壓下에 無禍事
 立 政治의 彈壓下에 無禍事
 立 政治의 彈壓下에 無禍事

[illegible]

